

# 스마트미디어 활용 언어치료에 대한 언어치료전공 대학생의 인식조사

이은경, 안수영, 박순희\*  
동신대학교

## A Study on the Cognitiveness of Pre-Language Therapists for Language Therapy Using Smart Media

Lee Eun Kyoung, Ahn Soo Young, Park Sun Hee\*  
Dongshi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언어치료 시 미디어 활용의 유용성을 밝히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언어치료전공 대학생의 미디어 활용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언어치료전공 대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142부의 설문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언어치료전공 대학생의 미디어 사용에 대한 인식은 언어발달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치료 적용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 사용은 주의 집중력 증진, 인지 및 창의성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 치료도구로서의 미디어 사용은 찬성하지만 미디어 활용에 대한 규칙을 교육하고 적절한 사이트나 프로그램을 잘 알아야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언어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 언어치료전공 대학생, 스마트미디어, 언어치료, 언어발달, 언어치료방법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ommon perception of the use of preliminary language rehabilitation as a basic study to demonstrate the usefulness of media utilisation in language therapy. Based on the previous research, data were collected for 150 preliminary language rehabilitation workers and 142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The study found that the perception of media usage in pre-language rehabilitation was necessary for language development and was also positive about the treatment. The use of media has been recognised as helpful in promoting attention, cognitive and creativity development. Also, the use of media as a treatment tool was agreed to, but it was recognized that the rules for utilizing the media were necessary and needed to know the proper site or program. Therefore, it was suggested that the development of sites and programs that can be used for language therapy is necessary.

**Key Words** : Pre-language therapists, Smart media, Language Therapy, Language development, Language therapy method

## 1. 서론

의사소통장애란 의사소통을 위하여 언어를 사용하고 이해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나타내는 장애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적장애, 자폐범주성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 1.1 연구의 필요성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Dongshin University research grants

\*Corresponding Author : Sun-Hee, Park(sunny681127@hanmail.net)

Received November 23, 2017

Accepted March 20, 2018

Revised February 19, 2018

Published March 28, 2018

학습장애, 뇌기능장애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나타나거나 유창성장애, 조음장애, 단순언어장애 등과 같이 특징적인 원인으로 인해 나타난다. 의사소통장애는 일반적으로 의사소통 영역에 있어서 이해 및 표현 언어발달 지연 및 지체가 있는 언어장애, 호흡, 발성, 공명기관 등 언어기관의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말장애로 분류해 왔으나, 말장애와 언어장애는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며 이는 모두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의사소통장애로 통칭하고 있다[1].

언어장애 아동은 일반아동과 또래 관계를 형성하고 함께 상호작용하기 위해 다양한 치료를 받는데 특히 언어발달은 영유아기에 가장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주 어린 연령부터 치료를 받기 시작하며 이 시기의 치료는 아동에게 매우 중요하다. 이들 언어치료 대상아동들은 개개인의 특징과 발달양상, 요구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에게 맞는 치료목표와 효율적인 치료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치료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하며 이를 위한 치료방법은 꾸준히 개발되고 있다.

기존 언어장애 관련 치료방법으로는 치료사중심중재, 환경중심중재, 스크립트를 사용한 중재, 장벽게임, 역할놀이 등 언어장애인에게 언어이해 및 사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다양한 치료기법들을 개발하고 사용하여 왔으며 효과성 또한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언어장애인들은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치료, 학습, 교육에서 환경적 제한이 있는 경우 치료에 어려움이 있으며 언어장애인들을 위한 치료방법의 다양화는 꼭 필요하다. 이러한 방법 중 하나가 미디어를 활용한 치료로 이는 언어적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훌륭한 치료수단이 된다[2].

미디어를 치료도구로 사용하면 첫째, 일반화에 용이하다. 치료실에서 치료사와 아동이 일대일로 치료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 중 하나는 다른 사람, 다른 환경으로의 일반화가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언어장애 아동에게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다양한 환경을 제공하여 치료할 수 있다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상호작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스마트미디어는 전통적 수업보다 상호작용성이 높다. 이 프로그램은 학습자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상호작용적이라 할 수 있으며, 상호작용성은 학업성취 및 장기기억과도 관련성이 높다[3, 4]. 따라서 미디어를 활용하여 치료실이라는 제한된 공간이 주는 한계를 극복하고,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제공하여 치료할 수 있으며 치료의 효

과성 또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치료 시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 여기서 유연성이란 다양한 교수-학습활동 형태에 적용 및 실행할 수 있음을 말한다. 넷째 스마트미디어는 내용이 풍부하다. 스마트미디어는 텍스트 기반의 매체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양의 학습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 다섯째 스마트미디어는 동기유발 효과가 높다. 컴퓨터의 동기 유발기능은 컴퓨터 기반 수업 프로그램의 중요한 요인이다. Clark[5]는 매체는 학습동기를 유발시키지 못한다고 주장하였지만, Yang과 Chin(1967)은 즉각 피드백, 애니메이션, 소리, 상호작용, 개별화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컴퓨터는 다른 어떤 매체보다 학생의 학습동기를 유발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스마트미디어는 부족한 선행지식 및 학습영역에서의 태도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4]. 여섯째 스마트미디어는 구조화된 수업을 가능하게 한다. Clark[5]는 학습에 영향을 주는 주요인 중 하나로 '수업방법'을 들었다. 스마트미디어는 교수자로 하여금 보다 구조적인 수업을 가능하게 한다. Reiser[6]는 어떤 특정한 매체는 특정한 방법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수업에서는 교수자가 매개자가 되며 방향을 지정해 준다. 이러한 형태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증가시키며 학습내용의 이해량을 증가시키며 학습된 내용의 전이력을 높여 준다고 하였다[7]. 반면에 치료실에서 미디어를 활용한다는 것이 비용적, 환경적, 방법적 측면으로 인해 누구나 사용하기에는 용이하지 않다는 단점 또한 있다.

현대사회는 스마트미디어 활용이 많은 사회로 정의할 수 있는데, 스마트미디어는 시공간의 제약 없이 융합 콘텐츠를 제공하는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매개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참여형·맞춤형 전달매체이다[8-11]. 스마트미디어 종류로는 크게 네트워크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등을 들 수 있는데, 미디어 기술의 괄목할 만한 성장과 더불어 사람들은 미디어를 좋아하고, 학습 자료로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 교재개발과 미디어를 활용한 수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12].

최근 들어 정보화의 발전으로 장애아동의 치료에 있어서도 미디어를 활용한 치료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정보화의 발전을 특징으로 하는 스마트미디어 사회에서는 언어장애를 치료하는 방식 또한 점점 다각화되고 있는데 아날로그방식의 한계를 벗어나 컴퓨터를 활용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적 접근법이 개발되고 있다[13]. 컴퓨터를 이용한 교수방법인 컴퓨터 보조학습(Computer Assisted

Instruction : CAI), 로봇을 활용한 자폐증재, PC나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보완대체의사소통(Argu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 AAC) 등 언어장애 아동의 상호작용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다양한 치료방법이 개발되고 있으며, 언어장애 중재에 스마트미디어의 활용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스마트기기 사용 확대와 관련한 기술발달이 이러한 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3, 14-17]. 더불어 언어치료 분야에서도 매체를 활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음성 영상화를 통한 아동 언어치료, 발화의 속도 조절 게임 등 컴퓨터를 활용한 치료프로그램 개발 사례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17, 18].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특정 장애영역 및 정적인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로 일반 치료사들이 접근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밀착형 치료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치료사의 스마트미디어 활용에 대한 지식과 스마트기기의 원활한 사용은 또한 다양성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스마트미디어의 다양한 활용에도 불구하고 언어장애를 치료하는 임상현장에서 스마트미디어를 활용하는 실태에 대한 현황에 대한 조사 및 치료사의 인식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언어장애인을 치료하게 될 언어치료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치료의 수단으로써 스마트미디어에 대한 인식과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한 정보인식, 미디어 활용 장애영역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언어치료시 스마트미디어의 활용가능성과 활용영역을 확인하고, 향후 대학에서 임상실습 시 스마트미디어와 콘텐츠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1.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언어치료 시 미디어 활용의 유용성에 대한 언어치료사의 인식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예비 언어재활사의 미디어 활용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언어치료전공 대학생의 미디어 활용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언어치료전공 대학생의 치료도구로서 미디어 활용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A대학 언어치료학과에 재학 중인 1~4학년 언어치료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에 대해 설명하고, 조사에 동의한 언어치료전공 대학생 150명에게 설문이 진행되었으며,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8부를 제외하였다.

설문지는 스마트미디어 활용도에 대한 언어치료전공 대학생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1)기초인적사항, (2)스마트미디어 활용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대한 내용, (3)언어치료 시 스마트미디어 활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으며, 설문항목은 인식 정도나 활용도를 5점 척도로 하고, 활용 목적이나 어플리케이션 선택은 다중응답하게 하였으며, 구체적인 어플리케이션의 종류는 선택하거나 적도록 하였다.

검사항목은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활용에 관한 김성재[19]의 연구에 사용된 문항들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활용하였다. 또 언어치료전공 대학생 5인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모호하다고 답한 문항에 대한 수정보완 후 기초인적사항 7문항, 미디어활용에 대한 일반적 인식 18문항, 치료도구으로써 미디어활용에 대한 인식 8문항 전체 33문항으로 최종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본 설문문항의 내용을 교수 2인과 1급 언어재활사 2인에게 문항의 내용타당성과 적절성을 검증하고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5이상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2016년 8월 진행되었으며, 총 142부가 자료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대상자들은 여자 128명(90.1%), 남자 14명(9.9%)이고, 임상경험은 관찰경험 52명(36.6%), 실습경험 46명(32.4%), 경험 없음 44명(31.0%)으로 나타났다.

### 2.2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예비 언어재활사의 일반적 특징 및 미디어 활용 인식조사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2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및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언어치료전공 대학생의 미디어활용에 대한 인식

언어치료전공 대학생의 미디어 사용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아동이 미디어를 사용함에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시간은 20분 46.5%(66명), 30분 35.2(50명)로 나타났고, 1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1%(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Table 1과 같다.

Table 1. Media usage time and age of children

		N	%
use time	less than ten minutes	23	16.2
	twenty minutes	66	46.5
	30minutes	50	35.2
	more than an hour	3	2.1
	total	142	100.0
Who did you use it with	therapist	50	35.2
	guardian	82	57.7
	friend	9	6.3
	alone	1	.7
	total	142	100.0
age of use	two-year-old	1	.7
	three-year-old	7	4.9
	four-year-old	15	10.6
	five-year-old	33	23.2
	the later the better	86	60.6
	total	142	100.0

아동들이 미디어(컴퓨터/스마트폰)를 사용할 때 대체로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보호자 57.7%(82명), 치료사 35.2%(50명)로 나타났고, 또래나 아동혼자는 6.3%(9명)와 0.7%(1명)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미디어(컴퓨터/스마트폰) 사용 연령으로 가장 적절한 나이는 늦을수록 좋다 60.6%(86명), 5세 23.2%(33명), 4세 10.6%(15명), 3세 4.9%(7명) 등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미디어 사용에 대한 예비 언어재활사의 생각을 알아본 결과, 바람직하다 44.4%(63명), 바람직하지 않다 9.2%(13명)으로 나타났고 잘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도 41.5%(59명)로 높게 나타났다.

아동의 미디어 사용이 언어발달을 위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은 적절하다 75.4%(107명), 적절하지 않다 22.5%(32명)으로 나타났으며, 컴퓨터 및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치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86.6%(123명)로 나타났다. 다음 Table 2와 같다.

Table 2. The Thinking of Children's Media Use

		N	%
thoughts about media use	be desirable	63	44.4
	be undesirable	13	9.2
	I don't know	59	41.5
	etc.	7	4.9
	total	142	100.0
media use for language development	be very appropriate	1	.7
	be appropriate	107	75.4
	be inappropriate	32	22.5
	be very inappropriate	2	1.4
	total	142	100.0
Language Rehabilitation Using Media	Yes	123	86.6
	No	19	13.4
	total	142	100.0

아동들이 미디어(컴퓨터/스마트폰)를 활용하게 되면서 얻는 것에 대한 응답은 주의 집중력 증진 26.4%(75명), 인지, 창의성발달 26.1%(74명), 학습능력 촉진 19.4%(55명), 미디어사용능력향상 10.2%(29명), 공격적 행동감소 8.5%(24명), 자신감과 유대감향상 8.5%(24명) 순으로 나타났다.

치료현장에서 아동들에게 사용했으면 하는 미디어(컴퓨터/스마트폰) 프로그램은 네이버 주니어 35.4%(95명), 유튜브 22.4%(60명), EBS 누리집 17.9%(48명), 다음 키즈짱 7.5%(20명), 지니키즈 7.1%(19명)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 Table 3과 같다.

Table 3. Media Use and Therapeutic Media in Children

		N	%
the gain from media use (multiple response)	improving media usage	29	10.2
	cognitive development, creativity development	74	26.1
	attention concentration enhancement	75	26.4
	aggressive behavior reduction	24	8.5
	confidence and Bond Improvement	24	8.5
	learning ability promotion	55	19.4
	etc.	3	1.1
	total	284	100.0
therapeutic media (multiple response)	daum kidszzang	20	7.5
	yahookids	15	5.6
	jr.naver	95	35.4
	genikids	19	7.1
	ebsnurisam	48	17.9
	youtube	60	22.4
	etc.	11	4.1
	total	284	100.0

이상의 결과를 보았을 때, 예비 언어재활사들은 미디어 사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언어발달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치료 적용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3.2 언어치료전공 대학생의 치료도구로서의 미디어 활용에 대한 인식

#### 3.2.1 치료 장면에서의 미디어 사용 인식

언어치료전공 대학생의 치료도구로서의 미디어 활용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치료수단으로서의 미디어 사용 인식, 치료적용 시 바람직한 미디어 사용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하였다. 다음 Table 4와 같이 치료 장면에서의 미디어 사용 인식을 살펴보면, 언어치료 현장에서 아동들이 미디어(컴퓨터/스마트폰)를 치료도구로 활용하는 것에 관해서 찬성 84.5%(120명), 반대 15.5%(22명)로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이유로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 34.2%(41명), 미디어 활용 기술 필수이므로 30%(36명), 가정에서 활용하고 있으므로 25.8%(31명) 등으로 나타났고, 반대 이유로는 발달에 적합하지 않아서 63.6%(14명)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Table 4. Use of Media as a Treatment Tool

		N	%
pros and cons of the media	affirmative	120	84.5
	opposite	22	15.5
	total	142	100.0
reason for approval	the needs of children	9	7.5
	media use is essential	36	30.0
	as it is being used at home	31	25.8
	because you learn a lot	41	34.2
	etc.	3	2.5
	total	120	100.0
opposite reason	not fit for development	14	63.6
	because it is unnecessary	4	18.2
	because it does not fit the treatment process	1	4.5
	because there is no excellent media	3	13.6
	total	22	100.0
Is the Media Helping with Language Therapy	be of great help	6	4.2
	be helpful	85	59.9
	be just as good	35	24.6
	be of little help	15	10.6
	have a negative impact	1	.7
total	142	100.0	

치료사로서 미디어(컴퓨터/스마트폰)가 아동의 언어 치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생각에는 도움이 되는 편이다 59.9%(85명), 그저 그렇다 24.6%(35명), 흥미만 보일 뿐 도움은 미비하다 10.6%(15

명), 큰도움이 된다 4.2%(6명) 순으로 나타나 도움이 되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저그렇다 혹은 도움이 미비하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Table 5와 같이 아동의 언어능력 향상을 위해 가장 유용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치료수단은 책 31.3%(67명), 컴퓨터 25.2%(54명), DVD관련자료 22.9%(49명), 스마트폰 15.0%(32명)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아동이 가장 흥미를 보일 것 같은 치료 수단은 컴퓨터 동화 및 동요 41.5%(59명), 컴퓨터플래시 기반 게임 23.9%(34명), 스마트폰 기반의 학습프로그램 19.7%(28명) 순으로 나타났고 책을 이용한 학습 7.7%(11명), 텔레비전의 아동 프로그램 7.0%(10명) 순으로 나타났다.

치료 시 미디어 활용영역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은 어휘 35.2%(50명), 의사소통 28.9%(41명), 이야기 발달 24.6%(35명), 구문 및 조음 5.6%(8명)와 4.9%(7명)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5. Media as a Treatment Means and Media Use Area in Treatment

		N	%
media as a therapeutic tool (multiple response)	computer	54	25.2
	smart phone	32	15.0
	DVD	49	22.9
	book	67	31.3
	etc.	12	5.6
	total	214	100.0
interesting therapeutic tool	computer flash based games	34	23.9
	computer assimilation and agitation	59	41.5
	learning programs based on smart phone	28	19.7
	a television program for children	10	7.0
	book learning	11	7.7
	total	142	100.0
	media application area in treatment	vocabulary	50
syntax		8	5.6
communication		41	28.9
articulation		7	4.9
story development		35	24.6
etc.		1	.7
total		142	100.0

이처럼 예비 언어재활사들은 미디어가 언어치료 도구로서 필요하며, 언어치료 시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언어치료 시 다양한 영역에서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한편, 치료수단으로서 유용한 미디어에 책(31.3%)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다양한 대중매체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2.2 치료 시 바람직한 미디어 사용에 대한 인식  
아동들이 미디어(컴퓨터/스마트폰)를 활용하게 되면서 염려되는 것으로는 미디어 중독이 78.9%(112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시력저하 등 건강문제 33.8%(48명), 대인관계 감소 26.1%(37명), 공격성 및 폭력성 성향 증가 22.5%(32명), 학습방해 18.3%(26명), 승패나 점수에 집착 22.5%(32명) 순으로 나타났다.

언어치료상황에서 미디어(컴퓨터/스마트폰)를 아동의 치료도구로 활용할 경우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치료사와 함께 71.8%(102명) 미디어를 활용해야 한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와 함께 26.8%(38명)로 나타났다. 또한 치료상황에서 미디어(컴퓨터/스마트폰)를 치료도구로 활용할 경우 가장 적절한 활동 형태는 개별치료 57%(81명)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소집단치료 24.6%(35명)로 나타났으며 모든 형태에서 수시로와 대집단치료는 각각 9.9%와 8.55로 나타났다.

미디어 활용을 위해 치료사로서 해야 할 일은 아동에게 미디어(컴퓨터/스마트폰) 활용에 관한 규칙교육(예: 정해진 사용시간, 정해진 사용용도 등) 51.4%(73명), 아동에게 알맞은 미디어(컴퓨터/스마트폰) 사이트 프로그램 알아보기 44.4%(63명)이 높게 나타났고 아동에게 미디어(컴퓨터/스마트폰) 활용에 대한 기술교육(예: 키보드, 마우스 조작하기, 화면 터치하기 등)이 4.2%(6명)으로 나타났다. 다음 결과를 Table 6에 제시하였다.

Table 6. Use of the Media for Treatment

	N	%	
concern about media use (multiple response)	media addiction	112	78.9
	increasing aggression, violence.	32	22.5
	stress by sticking to wins or losses	25	17.6
	interpersonal decrease	37	26.1
	health problems such as poor vision	48	33.8
	learning interference	26	18.3
	etc.	4	2.8
	total	284	200.0
a desirable method for treatment	use with a therapist	102	71.8
	Using Media with Parents	38	26.8
	child use alone	2	1.4
	total	142	100.0
therapeutic application type	from time to time in all forms	14	9.9
	personal therapy	81	57.0
	small group therapy	35	24.6
	large group therapy	12	8.5
	total	142	100.0
The Role of Therapist for Media Utilization	Finding the Right Site	63	44.4
	media application technical education	6	4.2
	media utilization rules	73	51.4
	total	142	100.0

이상의 결과에서, 예비 언어재활사들은 치료도구로서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치료사나 부모와 같이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며, 개별치료와 집단치료에 적절하고 언어재활사들은 언어치료시 미디어 활용을 위해서 아동에게 미디어 활용 규칙을 교육하고 알맞은 사이트나 프로그램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장애 아동 및 성인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도구로 스마트미디어의 활용가능성을 탐색하고자 언어치료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치료시간 내 스마트미디어의 활용도와 이용시간 등에 대한 인식정도를 알아보고, 각 영역별로 사용하는 스마트미디어의 종류와 미디어에 대한 인식 및 요구 등을 조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치료전공 대학생의 미디어 사용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발달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치료 적용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 미디어 사용은 주의 집중력 증진, 인지 및 창의성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치료 장면에서의 미디어 사용에 대한 인식은 미디어가 언어치료 도구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실제 언어치료 임상수련 시에도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 미디어 활용 언어영역은 어휘능력 향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치료수단으로는 책이 가장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언어치료 시 바람직한 미디어 사용에 대한 인식은 치료도구로서의 사용은 찬성하나 미디어 중독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치료사 및 부모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미디어를 활용한 가장 적절한 언어치료 형태는 개인치료나 소집단치료에 효과가 있고, 언어치료 시 미디어 활용에 대한 활용규칙을 교육하고 적절한 사이트나 프로그램을 잘 알아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이처럼 언어치료전공 대학생들은 미디어 활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임상수련 시 이미 치료에 적용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나 적절한 사이트나 프로그램이 미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보이는 자녀를 둔 대다수의 어머니들이 자녀의 의사소통능력 증진을 위해 스마트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전문가의 전문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어플리케이션 콘텐츠를 선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한 Lee 등(2013)의 연구와도 일치한다[23]. 또 Yim 등(2014)은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부모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사용경험을 조사한 결과, 두 집단 모두 사용경험이 있으며 아동의 의사소통능력 증진에 긍정적인 경험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22]. 이는 본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

따라서 적절한 사이트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학계 및 현장전문가들이 협력할 필요가 있으며, 그 활용을 위한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므로 정부의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디어 중독과 같은 문제요인을 제거하고 언어치료 시 효과적인 미디어 활용을 위한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며,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더불어 치료사들에게 적용방법 및 활용규칙 등을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는 많은 선행연구들[2, 3, 14-17]에서와 같이 스마트기기의 언어치료 적용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로서, 스마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언어장애 아동 및 전문가의 스마트미디어사용 실태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기초자료로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스마트 기술 분야와 언어치료 분야는 서로 다른 학제적 관점과 경험이 다르므로 학제 간 경계를 넘어 다양한 정보와 연구도구를 공유할 수 있다. 최근의 연구 및 교육적 요구는 융합적 사고와 지식을 필요로 하고 있고, 그 성과 측면에서도 융합과 통합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도는 최근 미디어 및 스마트기기 관련 연구들[20-22]의 증가 추세를 보더라도 시의적절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조사를 근거로 현재 언어치료에 필요한 스마트미디어 교구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기획, 제작하여 현장 언어치료의 양적,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학적 특성 및 실습경험 유무, 스마트기기 사용경험 등 여러 변수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보다 풍부한 연구적 함의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REFERENCES

- [1] Sim, H. S., Kim, Y. T., Kim, J. S., Kim, H. H., Bae, S. Y., Shin, M. J. & Kwon, M. S. (2011). *Introduction to communicative disorders*. Seoul: Hakjisa.
- [2] Kim, B. R., & Kang, K. S. (2008). Media Access and Use in the Special Education: Focused on the High School. *Special Education Research*, 7(1), 73-98.
- [3] Bosco, J. (1986). An analysis of the evaluations of interactive video. *Educational Technology*, 26(5), 7-17.
- [4] Najjar, L. J. (1996). Multimedia Information and Learning. *Journal of Educational Multimedia and Hypermedia*, 5(2), 129-150.
- [5] Clark(1994). Media will never influence learning, *Educational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42(2), 21-29.
- [6] Reiser, R. A. (1994) Clark's invitation to dance: An instructional designer's response, *ETR&D*, 42(2), 45-48.
- [7] N. Muthukrishna & J. G. Borkowski, (1995). *How learning contexts facilitate strategytransfer*.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9, 425-446.
- [8] Buckingham, D. (2013). *Media education: literacy, learning and contemporary culture*. Hoboken, NJ: John Wiley & Sons.
- [9] Cho, Y. S. (2011). The future of IT service on smart media. In *SMART on ICT 2011 Conference Presentation*. Seoul: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 [10] Croteau, D. R., Hoynes, W. D., & Milan, S. (2012). *Media/society: industries, images, and audience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11] Kim, J. H., & Kim, S. Y. (2012). *Media Contents 2.0: the dawning of the smart media age (IT strategy reports)*. Seoul: KT Economic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 [12] Oh, J. H. & Lee, J. L. (2007). Differential effects of multimedia instructional formats on learning efficiency: Focused on children's linguistic/spatial intelligence. *The Journal of Educational information and media*, 13(4), 103-125.
- [13] Lim, J. H., & Park, E. H. (2012). Development and research trends of application as the smart education media for ASD.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Persons with Autism*, 12(1), 93-117.
- [14] Cafiero, J. M., & Meyer, A. (2008). Your child with autism: when is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AAC) an appropriate option? *Exceptional Parent*, 38, 28-30.
- [15] Goldsmith, T. R., & LeBlanc, L. A. (2004). Use of

- Technology in Interventions for Children with Autism. *Journal of Early and Intensive Behavior Intervention*, 1, 166-178.
- [16] Ha, S. B., & Kang, S. M. (2011). Inquiry on the socio-cultural meaning of the using form and environment of smart phone: focused on the viewpoint of media-ecology studie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1, 89-99.
- [17] Hailpern, J., Karahalios, K., Halle, J., DeThorne, L., & Coletto, M. K. (2008). Visualizations: speech, language & autistic spectrum disorder. *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 Florence, Italy*, 3591-3596.
- [18] Hoque, M. E., Lane, J. K., El Kaliouby, R., Goodwin, M., & Picard, R. W. (2009). Exploring speech therapy games with children on the autism spectrum. *Proceedings of the 10th Annu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Speech Communication Association (INTERSPEECH 2009)*, Brighton, UK, 1455-1458.
- [19] Kim, S. J. (2013). Current status of utilization of digital media for infants/Toddlers and teachers' awareness. A master's thesis. Busan National University.
- [20] M. H. Kim. (2017). The Effect of Performing Leader's Role on Academic Achievement and Satisfaction in Small Group Collaborative Learning in Virtual Realit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1), 67-76.
- [21] J. M. Lee, E. B. Jo, H. Y. Li & J. Yo. Rha. (2017). A Study on University Students' Use and Assessment with Digital Devices and Services for Realizing Smart Campu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7), 27-39.
- [22] K. Kim & H. Kim (2017). A Study on Customized Software Education method using Flipped Learning in the Digital Ag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7), 55-64.
- [23] Yim, D. S., Kim, S. Y., Park, W. J., & Lee, Y. J. (2014). Analysis on needs based survey of parents and speech-language pathologists for smartphone programs. *Communication Science & Disorders*, 19(4), 486-500.
- [24] Lee, H. J., Kang, M. K., & Kim, Y. T. (2013). Current practice and support needs in smart media perceived by the mothers of children with communication difficulties. *Communication Science & Disorders*, 18(2), 163-171.

이 은 경(Lee, Eun Kyoung)

[정회원]



- 2011년 3월 ~ 현재 : 동신대학교 교수
- 2008년 3월 ~ 2011년 2월 :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겸임교수
- 2007년 8월 : 대구대학교 언어치료학 박사

▪ 관심분야 : 의사소통, 언어장애, 말장애, 다문화가정 자녀 의사소통

▪ E-Mail : eklee129@hanmail.net

안 수 영(Ahn, Soo Young)

[정회원]



- 1996년 3월 ~ 현재 : 동신대학교 교수
- 현 동신대학교 언어교육원장
- 1995년8월 :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박사

▪ 관심분야 : 언어학

▪ E-Mail : syahn571@naver.com

박 순 희(Park, Sun Hee)

[정회원]



- 2014년 3월 ~ 현재 : 동신대학교 교수
- 2012년 3월 : 동신대학교 원격평생교육원 교수
- 2009년 2월 :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 관심분야 : 가족상담 및 복지, 다문화가족의 의사소통 등

▪ E-Mail : Sunny681127@hanmail.net